



## 창세기 1-3장을 퀴어링하기<sup>1</sup>

유연희(감신대)

### 1. 서론

창세기 1-3장은 인간의 섹슈얼리티, 결혼, 출산, 남녀관계와 같은 주제에 대해 이성애 규범성(heteronormativity)과 같은 특정 기준을 제시하는 본문일까? 아니면 하나의 관점이 아닌 여러 상충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을까? 최근 창세기 1-3장은 창세기 19장, 레위기(18:22; 20:13), 로마서(1:26-27)와 같은 본문에 이어 동성애를 공격하는 사람들에 의해 증거본문으로 쓰인다. 창세기 1-3장은 하나님이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는 이분법(dichotomy)과 남자는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는 여자로 태어난다는 본질주의(essentialism)와 더

1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NRF- 2019S1A-5B5A07093685).

불어 남녀의 결혼과 출산이 ‘창조의 원리’라고 주장하는 데 쓰인다.<sup>2</sup> 창세기 1-3장에서 이성에 남자와 여자의 창조, 결혼과 출산의 제정, 불순종으로 인한 남녀의 벌과 같은 요소를 보는 것도 타당할 수 있지만, 규범으로 여기기에는 성서 본문이 그리 단순하지 않고 모호하며 다양한 요소와 주제가 있어서 해석에 열려 있다. 지금까지 수많은 독자들이 다양한 관심사와 관점으로 창세기 1-3장을 읽어온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학자들은 지난 세기에 페미니스트 시각에서 이 본문을 재해석했고, 1990년대 이래 학자들은 새로 출현한 퀴어이론을 수용하여 이 본문을 재해석해왔다. 또한 21세기 젠더에 대한 이해와 트랜스젠더 및 인터섹스 사람들의 존재와 경험은 남녀 이분법과 이성에 중심주의를 반박한다.

이 글의 목적은 창세기 1-3장을 이성에 규범성, 남녀 이분법 교리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읽는 것이다. 먼저 이미 그렇게 읽은 고대 랍비들과 초기 교부들의 해석, 페미니스트 해석과 퀴어 해석을 소개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본문에서 새로이 퀴어링할 수 있는 여지를 찾을 것이다. 그럼으로써 본문이 섹슈얼리티, 성관계, 결혼, 출산과 같은 주제에 대해 그리 이성에 규범적이지 않다는 것을 관찰하고, 고정된 해석을 유동적으로 만들 것이다.

이 글에서 사용하는 관점 및 방법론은 퀴어링, 퀴어비평이다. 퀴어링은 퀴어라는 말의 동사형이고 퀴어하게 만드는 것, 즉 ‘퀴어적 해석(queer reading)’의 줄임말이다. 이 해석 방법은 1980년대 말과 1990년대에 퀴어 이론에서 나온 기법으로서 문학, 영화, 예술 등 다양한 장르에 젠더, 섹슈얼리티, 남성성,

---

2 Christopher R. Seitz, *Word Without End: The Old Testament as Abiding Witness* (Grand Rapids: Eerdmans, 1998), 270; Robert A. J. Gagnon, *The Bible and Homosexual Practice: Texts and Hermeneutics* (Abingdon Press, 2002), 57-58; 이승구, “동성애에 대해서 성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동성애를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 『기독교사상』(2016년 8월), 12-13; 배정훈, “구약성서에서 바라본 동성애,” 기윤실부설 기독교윤리연구소 편,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적 답변: 동성애를 긍정하진 않지만, 동성애자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교회』(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1), 77.

여성성과 같은 범주를 의문시하고 도전하는 데 쓰인다. 퀴어이론의 기초를 놓은 이론가인 이브 세지윅(Eve Kosofsky Sedgwick)에 의하면, 퀴어란 ‘어떤 사람의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확립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 가능성, 틈... 그리고 과도한 의미의 열린 그물망’을 뜻한다.<sup>3</sup> 퀴어이론의 수립자로 인정받는 또 다른 이론가인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는 퀴어 및 젠더가 반복적으로 수행(performance)되는 행위요, 구성된 것(construct)이라고 본다.<sup>4</sup>

성서학계에서는 퀴어비평이라는 말을 함께 쓰는데, 켄 스톤(Ken Stone)은 퀴어비평의 특징으로 다음 여섯 가지를 든다.<sup>5</sup> 1. 문화, 사회, 본문의 의미와 실천을 해석하는 핵심 현장(sites)으로서 성적인 실천과 젠더에 주의를 기울인다. 2. 섹스, 젠더, 친족관계는 문화와 역사에 따라서, 그리고 한 문화 안에서 도 의미와 실천이 상당히 다르므로 그 의미와 실천의 안정화를 문제시한다. 3. 퀴어이론을 배경에 두고서, 남자와 여자,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 이성애와 동성애와 같은 고정된 이분법을 가진 성과 젠더의 의미를 의심한다. 대신에 젠더, 성적인 욕망, 성적인 실천의 유동성과 예측불가능 및 이분법의 불안정성을 강조한다. 4. 성적 실천, 젠더 역할, 가족 구조에 대한 현대 서구의 규범을 ‘이성에 규범적’으로 여기고 비평적으로 분석한다. 5. 이성에 규범성을 따르지 않는 문화적 현상, 실천, 개인의 예에 초점을 둔다. 반대로 주요 등장인물이 이성에 규범적 전제에 완전히 맞지 않는 경우도 다룬다. 6. 섹스, 젠더, 친족관계에 대한 규범과 실천이 국가, 민족, 인종, 종교와 같은 다른 종류의 규범과 실천과 함께 엮인 방식들을 탐구한다. 퀴어비평은 성서 본

3 Eve Kosofsky Sedgwick, *Tendencies* (Duke University Press, 1993), 8.

4 주디스 버틀러/조현준 옮김, 「젠더 트러블」(문학동네, 2008), 54-57, 211 이하 등. 원제는 Judith Butler, *Gender Trouble: Feminism and the Subversion of Identity* (New York: Routledge, 1990).

5 Ken Stone, "Queer Criticism", Steven McKenzie and John Kaitner(eds.), *New Meanings for Ancient Texts*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3), 156-57.

문을 해석할 때 다른 방법론들, 즉 역사비평, 문학비평, 페미니스트비평, 사회학 및 인류학 비평, 이데올로기비평, 해체비평 등을 활용하고 겹치기도 한다.

이 글은 이러한 퀴어링과 퀴어비평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두고 창세기 1-3장을 읽을 때 ‘트랜스’라는 상징적인 용어를 가지고 읽는다. 트랜스(trans)는 ‘넘어서,’ ‘통하여,’ ‘변하는’을 뜻하고, 젠더 논의에서는 트랜스젠더의 줄임말로 쓴다.<sup>6</sup> 이 글에서는 트랜스를 변한다는 의미, 가치와 젠더가 고정적이지 않다는 상징적 의미로 사용한다. 우리는 창세기 1-3장에서 커다란 변화, 태초와 에덴에서 현실로 이어지는 퀴어한 트랜스를 볼 것이다. 창세기 1장에서는 태초의 혼돈 상태가 질서와 천지창조로 트랜스하는 과정에서 하나가 둘이고 둘이 모두인 첫 인간을 관찰할 것이다. 창세기 2장에서는 흙덩이에서 흙사람으로, 흙사람에서 여자와 남자로, 그리고 다시 두 사람이 하나로 트랜스되는 것을 볼 것이다. 특히 창세기 2장은 성적으로 분화되지 않은 첫 인간, 여자와 남자의 창조, (남자의) 욕망의 인정, 결혼과 전통의 해체를 말하며 여러 변화, 특히 젠더의 트랜스가 두드러져서 고정된 것이나 안정된 것이 없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낙원이다. 창세기 3장에서는 유토피아에서 디스토피아로의 트랜스를 볼 것이다. 그 과정에서 2장에서 있었던 섹슈얼리티의 축하가 패러디되고 젠더 관계와 역할의 트랜스가 관조와 유머 속에 벌어지는 것을 관찰할 것이다. 이처럼 창세기 1-3장을 퀴어 시각과 트랜스 관점에서 읽는 시도는 독자의 고정관념에 도전하고 세상과 사람들에 대해 폭넓은 시각을 제공할 것이다.

---

6 <https://www.dictionary.com/browse/trans->

## 2. 창세기 1-3장에 대한 유대교의 고대 랍비들과 그리스도교의 초기 교부들의 해석

우리는 창세기 1-3장 속 최초의 인간(들)을 이성애 규범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본 유대교의 고대 랍비들과 그리스도교의 초기 교부들의 해석의 예를 살펴보기로 한다. 고대 유대교 랍비들은 인간 창조 이야기 속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데서 나왔다. 첫째 문제는 창세기 1:27에서 첫째 인간(들)을 가리킬 때 단수와 복수가 모두 쓰인 점이다. 둘째 문제는 인간 창조 이야기가 창세기 2장이 또 나온다는 점이다.

1세기의 유대인 철학자 필로(Philo)는 인간 창조를 영적으로 해석하여 하나님은 전적으로 다른 인간을 두 번 창조하셨다고 본다.<sup>7</sup> 창세기 1장의 첫째 종(species)은 몸이 없는 아담으로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어졌고, 그래서 아담의 남성-여성성은 영적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실제로는 남성도 여성도 아니다. 창세기 2장에서 만들어진 인간은 몸이 있는 남자이다.

고대 후기(late antiquity, 3-7세기)에는 창세기 1장의 인간이 안드로진(남녀 성을 가진 한 인간)이라는 생각이 유대 (그리고 결국 그리스도교) 전통의 플라톤주의자 사이에서 널리 퍼져있었다.<sup>8</sup> 창세기 라바(Genesis Rabba, 8:1)는 1장의 인간이 안드로진이었다고 하며 이렇게 전한다: 엘아자르의 아들 이르메야(Yirmeyah son of El'azar) 랍비가 말했다. “찬양받으시는 거룩하신 분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 그는 그를 안드로진으로 만드셨다. ‘남성과 여성을 그는 그들을 지으셨다’(창 1:27)고 하신 바와 같다.” 나흐만의 아들 쉘무엘(Shemu'el son

7 Philo, “On the Creation”, In vol. 1 of *Loeb Classics Philo* (London: Heinemann, 1929), 107. Boyarin, *Carnal Israel*, 38-39에서 인용.

8 Wayne A. Meeks, “The Image of the Androgyne: Some Uses of a Symbol in Earliest Christianity,” *Journal of the History of Religions* 13 (1973), 165-208. Daniel Boyarin, *Carnal Israel: Reading Sex in Talmudic Cultur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3), 36에서 인용.

of Nahman) 랍비는 말했다. “찬양받으시는 거룩하신 분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 얼굴 등과 등 둘을 주셨는데, 하나는 이쪽에 하나는 저쪽에 주셨다.”<sup>9</sup>

필로와는 반대로 팔레스타인 미드라쉬는 몸의 안드로진을 강조했다. 이 탈무드는 두 가지 창조 이야기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최초의 안드로진 신화를 인용하면서도 의미를 바꾸어 신화의 이해를 뒤집었다.<sup>10</sup> 최초의 아담(1장)은 한 몸에 남, 녀 성기를 가진 안드로진이었고, 그래서 2장에서는 그 두 성을 분리하여 두 인간의 몸으로 재구성했다는 것이다.

서구를 비롯해 한국 그리스도교에 잘 알려진 해석, 즉 아담이 남자이고, 그로부터 여자가 창조되었다는 해석도 있었다. 탈무드에 의하면, 쉬무엘(Shmuel) 랍비는 처음부터 남자 아담만 창조되었고 여자는 나중에 아담의 갈비뼈로 창조되었다고 주장한다.<sup>11</sup> 창세기 1:27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려는 하나님의 의도만을 가리키고, 여자는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초기 그리스도교 교부들도 창세기의 인간 창조 이야기를 이성애 규범주의로 해석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오리게네스(Origen, c. 185-c. 253)는 두 번의 인간 창조 이야기에 대해 필로와 비슷하게 해석했다.<sup>12</sup> 두 이야기는 인간의 두 측면을 강조하는데, 하나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면을 강조하고, 다른 하나는 신체적이고 역사적인 면을 강조하여 상호보완적이다. 오리게네스는 문자적인 성적 차이와 재생산을 하나님의 창조의 일부로 인정하면서도, ‘남성과 여성’은 영혼(soul)의 두 부분, 즉 영(프뉴마)과 정신(psyche)의 조화를 나타내며, 이 조화가 깨지면 부정한 생각이 떠오르고 몸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고

9 Daniel C. Matt, *The Zohar*, Pritzker Edition, Vol. 1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4), 217, 주 897에서 인용.

10 Jehuda Theolur and Hanoach Albeck, eds., *Genesis Rabbah* (Jerusalem: Wahrmann, 1965), 54-55. Boyarin, *Carnal Israel*, 42-43에서 인용.

11 Theolur and Albeck 1965, 157. Boyarin, *Carnal Israel*, 44에서 인용.

12 Origen, *Homilies on Genesis*. John Anthony McGuckin, ed. *The Westminster Handbook to Origen*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4), 54-55에서 인용.

알레고리적이고 영적으로 해석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대교의 고대 랍비들과 그리스도교의 초기 교부들은 창세기의 인간 창조 이야기를 각자의 해석 목적, 배경 학문과 문화, 관심사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했다.

### 3. 선행 연구: 테홈씨(Mx. Tehom)로부터 별로 받은 이성애 욕망과 출산까지

창세기 1-3장의 본문에 퀴어 시각을 적용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데린 게스트(Deryn Guest), 켄 스톤(Ken Stone), 마이클 카든(Michael Carden)을 들 수 있다.

먼저 영국의 버밍햄대학교에서 가르치는 데린 게스트(Deryn Guest)는 창세기 1:2의 **וְהוּ וְהוּ**(토후 바보후/혼돈하고 공허한), **וְהוּ**(테홈/깊음), **וְהוּ**(호섹/어둠)과 같은 단어를 가지고 트랜스젠더 사람들을 위해 창세기 1장의 앞부분을 재해석한다.<sup>13</sup> 게스트는 테홈을 고유명사로 보고 트랜스 사람인양 테홈씨라고 부르는데 Mr.나 Ms.가 아닌 Mx.를 붙여 Mx. Tehom이라고 한다. 테홈이 창세기 1장에서 정관사 없이 나오고, 때로 의인화된 행동을 하고(창 49:25; 신 33:13), 형태는 남성이나 주로 여성 명사로 쓰여서 젠더가 바뀌는 퀴어한 명사이기 때문이다. 게스트가 볼 때, 창세기 1장의 저자는 경계를 정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서, 유동적이고 깊고 어두운 것들을 제어하기 위해 강력한 하나님을 소환한다.

게스트는 혼돈과 어둠 그리고 질서와 창조가 공존하는 창세기 1장을 해석하며, 마그릿 쉴드릭(Margrit Shildrick)의 괴물스러운 것(the monstrous)에 대한

---

13 Deryn Guest, "Troubling the Waters", Teresa J. Hornsby and Deryn Guest (eds.), *Transgender, Intersex, and Biblical Interpretation*, Semeia Studies 83 (Atlanta: SBL Press, 2016), 21-44.

연구에 의존한다. 쉴드릭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경계 불안과 괴물스런 것을 타자, 즉 아브제를 만들어 투사하는데, 이는 소위 정상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관찰한다. 그래서 괴물은 아브제 영역의 기표가 아니라 우리의 정상성의 기표, 지시어이다.<sup>14</sup> 그래서 게스트는 테홈씨와 토후 바보후와 호색을 정복하고 추방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일부로 볼 수 있다면, 우리 자신의 괴물성이나 트랜스 사람들을 아브제의 영역으로 밀어 억압하는 대신 수용하고 아우를 수 있다고 한다.<sup>15</sup>

시카고신학대학원의 구약성서 교수인 스톤은 창세기 1-3장에 대해 두 가지 연구를 내놓았다. 첫 번째는 창세기 1-3장의 기저에 있는 불안정성, 불일치, 모호성에 초점을 두고, 본문에서 단단한 이성애 규범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다.<sup>16</sup> 스톤은 모니크 위티(Monique Wittig)이 이분법적(binary) 성구분에 의한 추정과 제도를 가리키는 용어, ‘이성애 계약(heterosexual contract)’을 따서 창세기 1-3장이 이를 나타내는 듯하다고 본다.<sup>17</sup> 그러면서도 스톤은 몇 군데에서 이 ‘이성애 계약’의 불안정성과 모호성을 발견한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여자의 불순종에 대해 벌을 내리시며 여자의 ‘욕망’이 남편을 향할 것이라고 하신다(3:16). 스톤이 볼 때 학자들이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이 말은 놀랍게도 ‘이성애 계약’의 불안(insecurity)을 암시한다. 여자의 이성애적 욕망이 불순종의 결과로 받은 벌이라면 이 욕망은 여자의 원래 본성이 아니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여자의 이성애적 욕망과 남편이 그녀를 지배할 것이라는 말을 함께 두면, 여자는 ‘이성애 계약’의 조건에 따르지 않을 이유들이 있었던

14 Margrit Shildrick, *Embodying the Monster: Encounters With the Vulnerable Self* (London: Sage, 2002), 29-30. Guest, “Troubling the Waters”, 31에서 인용.

15 Guest, “Troubling the Waters,” 32 이하.

16 Ken Stone, “The Garden of Eden and the Heterosexual Contract”, Robert Goss and Mona West (eds.), *Take Back the Word: A Queer Reading of the Bible* (Cleveland, OH: Pilgrim Press, 2000).

17 Monique Wittig, *The Straight Mind and Other Essays* (Boston: Beacon Press, 1992), 32. Stone, “The Garden of Eden and the Heterosexual Contract”, 58에서 인용.

듯하다고 스톤은 주장한다.<sup>18</sup> 또한 창세기 2장에서 흙으로 지어진 인간이 성적으로 모호한 이유는, 성서 저자가 남성 신과 이스라엘 백성(남성) 사이의 잠재적 호모에로틱한 관계에 대해 불편해하기 때문인 듯하다고 한다.<sup>19</sup>

스톤은 두 번째 연구에서 현대의 독자들이 창세기 2-3장에서 이성애 규범을 가정하는 것에 도전하기 위해 카이사레아의 바실리우스(Basil of Caesarea, 330-379년)와 같은 초기 교부들이 창세기 본문을 섹슈얼리티의 관점만이 아니라 음식과 식탐(gluttony)의 위험, 금식과 정절(chastity)의 중요성이라는 관점에서도 읽었다고 지적한다. 교부들은 아담과 이브 이야기를 섹슈얼리티 관점에서 읽기도 했지만, 오늘날 이성애 중심주의와 사뭇 달랐다. 존 크리소스툼(John Chrysostom)과 제롬(Jerome)의 경우, 아담과 이브가 낙원에서 순결하게 지냈다고 믿었다.<sup>20</sup> 특히 크리소스툼에게 성관계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의 도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처럼 인간이 저주받은 상황을 나타낸다. “결혼의 기원을 아는가? … 그것은 불순종, 저주, 죽음에서 나온다. 죽음이 있는 곳에 결혼이 있다…”<sup>21</sup> 오늘날 우리가 이 교부들의 해석에 충실하려면 이성애 규범성과 결혼과 출산보다는 금식과 정조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호주의 퀸즈랜드대학교에서 가르치는 마이클 카든(Michael Carden)은, 오리게네스를 포함한 그리스도교 저자들이 최초의 인간을 안드로진으로 이해하고 나중에 두 가지 성으로 나뉘었다고 해석한 것에 주목한다.<sup>22</sup> 즉, 그리스도교는 자웅동체자(hermaphrodite)를 인간의 범주로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자웅동체자의 성관계에서 남색(sodomy)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이슈였

18 Stone, 위의 글, 63-64.

19 Stone, 위의 글, 67.

20 John Chrysostom, On Virginitv XIV.3 (Shore 1983), 21; Jerome, *Against Jovinianus* I:29 (NPNF VI: 368). Stone, 위의 글, 28-29에서 인용.

21 Chrysostom, On Virginitv XIV.6, 22. Stone, 위의 글, 29에서 인용.

22 Michael Carden, “Genesis/Bereshit”, Deryn Guest, Robert Goss, and Mona West (eds.), *The Queer Bible Commentary* (SCM Press, 2015), 27.

고, 그 해결책은 근대 외과 수술의 선구자인 앙브로와즈 파레(Ambrose Paré)가 1573년에 말한 바와 같다. “그들이 어느 성 기관을 사용하고 싶은지 선택하는 것이고, 선택하지 않은 기관을 사용하면 죽음에 처해진다는 조건으로 금지된다.”<sup>23</sup>

카든이 2장의 창조에서 새롭게 본 것은 2장 6절, “땅에서 물이 솟아서, 온 땅을 적셨다”이다. 카든에게 이 구절은 하늘과 땅의 안드로진적인 결합을 나타낸다.<sup>24</sup> 야웨 엘로힘이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에는 나무가 없고, 들에는 풀 한 포기도 아직 돌아나지 않았을 때’ (창 2:5) 창조가 이미 시작된 것이다. 창조는 땅이 스스로 물을 대고 스스로 생산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일찍이 시리아 교부 에프렘은, 이 물이 창조의 첫째 날에 어둠 아래 펼쳐져 있던 물이고, 샘에서 솟아난 것과 같은 물이라고 연결한 바 있다.<sup>25</sup>

#### 4. 창세기 1-3장: 에덴에서 현실 세계로의 퀴어한 트랜스

이제 성서 본문을 따라가며 최초의 인간들에게 일어난 젠더의 다양성과 트랜스, 관계와 삶의 트랜스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 1) 창세기 1장: 하나가 둘이고 둘이 모두인 이야기

창세기 1장에서 인간 창조 부분, 특히 1장 26-27절은 문법이나 내용이 모호하여 단순한 해석을 거부한다. 1장 26a, 27절의 히브리어 원문을 어순에

---

23 Philip Almond, *Adam and Eve in the Seventeenth-Century Thought* (Cambridge, New York, Melbourne: Cambridge Univ. Press, 1999). Carden, “Genesis/Bereshit”, 27에서 인용.

24 Michael Carden, “The Book of the Twelve Minor Prophets”, Deryn Guest, Robert Goss, and Mona West (eds.), *The Queer Bible Commentary* (SCM Press, 2015), 439, 주 4.

25 Mathews, Jr. and Amar, *Saint Ephrem the Syrian*, 98.

따라 번역하면 아래와 같다.

ויאמר אלהים נעשה אדם בצלמנו כדמותנו

...

ויברא אלהים את-האדם בצלמו בצלם אלהים ברא אתו זכר ונקבה ברא אתם

그리고-말씀하셨다 하나님(엘로힘)이,

“우리가-만들자 사람을(아담) 우리의-모습(צלמ)으로 우리의-모양(דמות)으로...”

(1:26a)

그리고-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사람을(하아담)

그의-모습으로,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가-창조하셨다 그를,

남자 그리고-여자를 그가-창조하셨다 그들을.”(1:27)

이 본문은 성과 수의 불일치, 이상한 방식으로 반복되는 단어와 문구가 있어서 번역과 이해가 어렵다. 26a절에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우리’로 지칭한 것, 27절에서 비슷한 내용이 매 시행에 걸쳐 반복되는 것, ‘모습’과 ‘모양’의 의미 등이 술한 학문적 논의를 낳았다.

본문의 흐름을 보면, 26a절의 하나님, 곧 ‘우리’는 27절에서 사람(하아담)으로, 그런 다음에 남자와 여자로 차례로 분화된다고도 볼 수 있다. 26a절부터 시작하면 ‘하나님=우리=그=남자와 여자=그들’로 등치된다. 본문은 성서에서 자주 쓰이는 대구법인데 전형적이지가 않다. 어찌면 문장들이 같은 의미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닐까? 창세기 1장 27bc 절, “그가-창조하셨다 그를, 남자 그리고-여자를 그가-창조하셨다 그들을.”의 두 문장이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두 번의 인간 창조를 의미한다면 둘째 행

www.kci.go.kr

(“그가-창조하셨다 그를,”)의 끝 단어인 ‘그를( $\eta\mu\varsigma$ )’에 붙은 아트나흐가 이 해석을 지지한다. 아트나흐는 분리 액센트(disjunctive accent)로서 논리를 나눈다.<sup>26</sup> 그렇다면 첫 번째 인간 창조(그가-창조하셨다 그를)는 단수로서 하나의 인간을 만들었고, 두 번째는 복수로서 남자와 여자, ‘그들’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 인간은 문법적으로는 남자이나 실제로는 알 수 없다. 두 번째 인간들은 남자와 여자 두 명이 별도로일 수도 있고, 한 몸의 안드로진일 수도 있다. 그동안 익숙했던 전통적 해석의 관점에서는 이 해석이 매우 이질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본문은 이러한 해석을 배제하지 않는다. 성서는 내재하는 모호성, 탄력성, 유연성, 불투명성 때문에 많은 해석에 열려 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만들자”고 스스로를 복수형으로 지칭한 것에 대한 현대 학자들의 해석에도 안드로진의 가능성이 등장한다. 20세기 중반에 발터 아이히로트(Walter Eichrodt)는 복수형 엘로힘이 ‘개별 신들을 포함하고 전체 만신전(pantheon)을 한 개념으로 결합하는 더 높은 단일체(unity)를 표현하기 위해’ 쓰였다고 설명했다.<sup>27</sup> 실상 ‘엘로힘’은 성서에서 여성을 가리키는 데도 쓰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스다롯 여신을 ‘시돈 사람들의 엘로힘’이라고 불렀다(엘로헤 짜도님, 왕상 11:5, 33). 즉, 엘로힘이라는 명칭에는 안드로진의 요소가 들어 있으므로 창세기 1장 26-27절에서의 엘로힘 언급과 인간 창조를 안드로진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인간이 하나님의 신체와 몸의 모습을 닮은 것인지에 대해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다. 일부 학자들은 하나님이 섹슈얼리티를 가졌을 거라는 생각에 애

26 E. Kautzsch, ed., *Gesenius' Hebrew Grammar*, trans. A. E. Cowley (2nd ed. Oxford: Clarendon Press, 1980), 59, 61.

27 Walter Eichrodt,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Philadelphia: Westminster, 1961), 185. 마이클 쿠겐은 ‘우리는 신의 공의회를 이끄는 엘로힘과 배우자 여신 아세라를 가리키고 이들의 모습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Michael D. Coogan, *God and Sex: What the Bible Really Says* (Hachette Book Group, 2010), 6장.

대한 답변을 주거나 반대한다.<sup>28</sup> 반면, 데이빗 카(David Carr)는 ‘하나님의 모습으로’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몸의 모습으로’를 가리키고, 인간이 하나님의 몸과 섹슈얼리티를 닮았고, 28절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를 분명하게 한다고 본다.<sup>29</sup> 어쨌든 인간은 생명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어지고 왕 같은 대표자로서 땅을 다스리도록 전권을 부여받는다.<sup>30</sup> 그리고 이 개념이 모든 사람, 남자와 여자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퀴어 해석은 창세기 1:27에 새로운 빛을 더한다. 마가릿 위닉(Margaret Moers Wenig)은 1장 27절에서 모든 가능한 젠더 정체성과 스펙트럼을 본다.<sup>31</sup> 위닉은 ‘남자와 여자’를 두 개의 대조적인 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내는 문학기법인 메리즘(merism)으로 해석한다. 예를 들어, ‘하늘과 땅’(창 1:1)이 하늘과 땅 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망라하듯이, ‘남자와 여자’는 젠더의 스펙트럼, 즉 모든 가능한 젠더 정체성의 스펙트럼을 나타낸다. 따라서 27절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조합(combination)을 만드셨다”를 뜻한다.<sup>32</sup> 이는 버지니아 몰렌콧(Virginia Mollenkott)이 하나님을 옴니젠더(omnigender, 모든 젠더), 즉 모든 젠더 정체성과 표현을 가진 존재로 보아야 한다는 말과 같은 맥락이다.<sup>33</sup>

창세기 1장의 첫 인간(들)은 퀴어할 수밖에 없다. 인간 부모의 결합으로 만

28 웬함, 고든/박영호 옮김, 「창세기: 1-15」 Vol. 1 (서울: 솔로몬, 2001), 126. 원저는 Gordon Wenham, *Genesis 1-15*, Word Biblical Commentary, Vol. 1 (Word Books, 1987); Phyllis Bird, *Missing Persons and Mistaken Identities: Women and Gender in Ancient Israel*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7), 142.

29 David Carr, *The Erotic Word: Sexuality, Spirituality, and the Bible* (Oxford Press, 2003), 18, 23, 25.

30 버드는, 3천년 전 메소포타미아에서 신의 켈렘과 테무트로 만들어진 왕들의 조각상에 대한 자료를 성서 본문과 비교한다. Bird, *Missing Persons and Mistaken Identities*, 132-38.

31 Margaret Moers Wenig, “One Male and Female God Created Them,” Gregg Drinkwater, Joshua Lesser, and David Shneer (eds.), *Torah Queeries: Weekly Commentaries on the Hebrew Bible* (New York Univ. Press, 2009), 111-16.

32 위의 글, 16.

33 Virginia R. Mollenkott, *Omnigender: A Trans-religious Approach* (Pilgrim Press, 2007).

들어지지 않았고 인간 여자에게서 태어나지 않았다. 하나님은 홀로 인간을 만든 것은 남녀의 결합이 아닌, (그리스신화에서 제우스가 머리에서 아테네를 태어나게 한 것처럼) 단위 생식(parthenogenesis)에 의한 출산을 나타낸다. 이처럼 다양한 해석은 모호한 본문을 이해하려는 해석일 뿐, 각 해석 자체의 규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이들 해석은 창세기 1장의 인간 창조 이야기에는 섹슈얼리티에 대해 규범적이고 자명한 것이 없음을 보여준다.

## 2) 창세기 2장: 흙이 흙사람으로, 흙사람이 여자와 남자로, 둘이 다시 하나로 되는 트랜스 이야기

우리는 창세기 2장에서 흙으로 만들어진 첫 인간의 섹슈얼리티, 여자와 남자의 창조, 욕망의 인정 및 결혼과 전통의 해체, 그리고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여러 변화, 특히 젠더가 변화하는 트랜스 이야기를 본다. 창세기 2장에서의 창조는 1장과 달리 본문 내부의 관점을 따라 화자가 점차 구성해 나간다.

### (1) 흙에서 흙사람으로의 트랜스

먼저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2:7), 나중에 동물도 그렇게 만드신다(2:19). 모두 흙에서 생명체로 트랜스한다. 흙으로 빚어진 첫 사람에 대해 필리스 트리블(Phyllis Trible)은 남자 아담이 아니라, 성적으로 분화되지 않은 ‘흙사람(earth creature)’이라고 주장했다.<sup>34</sup> 즉 하나님이 이 흙사람의 ‘옆’을 떼어 여자를 만들 때에야 남자도 생긴다.<sup>35</sup> 그 후 미케 발(Mieke Bal)과 같은 학자

34 필리스 트리블/ 유연희 옮김, 「하나님과 성의 수사학」(태초, 1996), 특히 4장. 원제는 Phyllis Trible, *God and the Rhetoric of Sexuality* (Fortress Press, 1978).

35 창세기 2:21의 켈라(קַלָּה)는 종종 ‘갈비뼈’로 번역되나 성서 다른 곳에서 ‘옆’, ‘측면’으로 쓰였다. 출 26:20 참조.

도 동조하며 이 흙 피조물이 ‘이름도 성별도 활동도 없다’고 했다.<sup>36</sup>

트리블이 처음 흙사람에 대한 해석을 내놓은 이후 반론이 여럿 나왔었다.<sup>37</sup> 요즘에는 더 많은 학자들이 트리블의 해석에 따르는 추세이다. 최근에 헬렌 쉥겔-슈트라우만(Helen Schüngel-Straumann)은 지적하기를, 만일 하아담이 남자이고, 아다마(흙)로 돌아가야 하는 운명이 남자에게만 해당된다면 여자는 영생을 누린다는 말이 되고, 창세기 3:24에서 에덴에서 쫓겨난 것은 남자(하아담) 뿐이고, 여자는 에덴에 남아 있다는 말이 된다고 한다.<sup>38</sup> 다니엘 보야린(Daniel Boyarin)도 다른 성이 없으면 ‘남자’도 없고, 그러니 흙사람은 젠더가 없다고 본다.<sup>39</sup>

하나님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2:18)고 판단하시고 흙사람에게 에제르 크넥도(עֵצֶר כְּנֶכֶד)를 만들어 주겠다고 하신다.<sup>40</sup> 에제르는 ‘구원자, 구조자(succor)’를 뜻하는 아자르에서 나왔다.<sup>41</sup> ‘맞은 편’을 뜻하는 전치사 크넥도를 고려하여, 에제르 크넥도를 ‘구원자 상대’, ‘구해주는 파트너’로 번역해도 좋을 듯하다. 학자들은 18절이 24절과 더불어 2장의 주제를 제시한다고 본다. 즉 2장의 주제는 공동체, 관계, 교제

36 Mieke Bal, *Lethal Love: Feminist Literary Readings of Biblical Love Stories*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1987), 112.

37 예를 들면, Susan Lanser, “(Feminist) Criticism in the Garden: Inferring Genesis 2-3”, *Semeia* 41 (1988), 72; David Jobling, *The Sense of Biblical Narrative: Structural Analyses in the Hebrew Bible*, II, JSOTS 39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86), 41-42; Jerome Gellman, “Gender and Sexuality in the Garden of Eden”, *Theology & Sexuality* 12,3 (2006), 323-24.

38 Helen Schüngel-Straumann, “Genesis 1-11: The Primordial History”, Luise Schottroff and Marie-Theres Wacker (eds.), *Feminist Biblical Interpretation: A Compendium of Critical Commentary on the Books of the Bible and Related Literature* (Eerdmans, 2012), 4.

39 Boyarin, *Carnal Israel*, 37. 주 13. 그런가 하면, 아담은 이브의 창조 전 ‘그의’ 상황을 언급할 때 자신을 남성으로 기억한다.

40 성서의 다른 곳에서 에제르는 종종 도우시는 하나님과 관련해서 쓰인다(신 33:7; 시 33:20 등). 새번역은 에제르 크넥도를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으로, 개역개정은 ‘돕는 배필’로 번역한다.

41 Francis Brown, Samuel R. Driver, and Charles A. Briggs, *A Hebrew and English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Clarendon Press: Oxford, 1953), 740.

이지, 이성, 결혼, 부부, 부모와의 관계, 가족이 아니다.<sup>42</sup>

그런데 동물 중에서 하아담의 짝을 찾게 하려는 야웨의 발상은 동물과의 교접을 금한 레위기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놀랍다(레 18:23; 20:15-16 참조). 흠 사람은 모든 동물에게 이름을 붙여주었을 뿐, 에제르 크넥도가 없어서 하나님은 다른 방안을 취하신다. 그런데 에제르는 남성형이다(여성형은 에즈라). 나중에 여자가 바로 하나님이 찾던 ‘구해주는 파트너’로 판명나는 것을 생각하면 젠더가 바뀌어 어리둥절하다. 하나님(18절)과 화자(20절)는 남성형 에제르를 써서 독자로 하여금 하나님이 흠사람에게 남자 동반자를 만들어주실 것이라고 상상하게 한다. 이렇게 등장인물, 화자, 독자의 기대가 다 같지가 않다. 하나님은 하아담을 위한 ‘에제르 크넥도’를 생각하시지만 하아담은 ‘에제르 크넥도’를 언급하거나 찾는 적이 없다.

## (2) 흠사람에서 여자와 남자로의 트랜스

하나님은 2장 21-23절에서 잠든 하아담의 한 ‘옆’(**צַד**/צל라)을 떼어내고 빈 곳은 살로 채우신 후 떼어낸 부분으로 여자를 만드신다. 이 장면에는 두 번의 변화가 벌어진다. 흠사람의 ‘옆’이 여자로 트랜스하고, 흠사람이 여자와 남자로 트랜스한다. 여자가 존재하게 되자 남자가 존재하게 된다. 남자는 ‘내 뼈 중의 뼈, 살 중의 살’이라는 말(2:23)로 ‘같음’에 즉각 반응한다.<sup>43</sup> 발(Bal)은 이 표현이 남자와 여자가 하아담의 자녀로서 동등한 남매임을 나타낸다고 본다.<sup>44</sup> 그렇다면 이 남매가 ‘하나의 살이 되는’ 것(24절)은 근친상간이고 레위기 조항(18:9; 20:17)에 다시금 어긋난다. 야웨 저자의 시학은 에텐 밖

42 Mollenkott, *Omnigender*, 102; David Carr, *The Erotic Word*, 31-33; Hemchand Gossai, “Divine Evaluation and the Quest for a Suitable Companionship”, *Crosscurrents* (Winter 2003), 545-48, 551.

43 위의 글, 550-51.

44 Bal, *Lethal Love*, 116; 트리블/유연희, 「하나님과 성의 수사학」, 99. ‘살’은 성서에서 종종 형제 사이 및 혈연관계를 가리킨다(창 29:14; 37:27; 레 18:6; 25:49; 사 9:2; 삼하 5:1; 19:12, 13; 대상 11:1 등).

세상과의 가치와 각을 세우는 듯하다.

그런데 남자의 환호에 여자는 반응이 없다. 미켈란젤로(1475-1564년)는 하 아담이 깨어나기 전 하나님과 여자 사이의 대화 장면을 그림에 담았다. 시스틴 성당의 천장에는 ‘이브의 창조(The Creation of Eve)’가 있다. 그림 속 아담은 왼쪽 아래에서 죽은 나무에 비틀린 자세로 기대어 앉아 잠들어 있고, 근육질의 이브는 가운데서 몸을 약간 굽혀 두 손을 모은 자세로 얼굴을 오른쪽의 하나님을 향해 무언가 말하는 모습이다. 대화의 내용은 무엇일까? 아무래도 미켈란젤로는 야훼 저자보다 페미니스트인 듯하고, 이브는 그림 속에서 영원히 살아 있다. 2장에서 여자가 수동적인 것이 불만스런 미켈란젤로 같은 독자를 위해 3장에서 여자는 능동적으로 트랜스한다.

### (3) 둘에서 다시 하나로 트랜스

2장 끝에서 여자와 남자는 다시 하나로 트랜스한다. “그러므로 남자는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를 떠나, 그의 여자와 결합(다바크)하여 한 몸(바사르)이 된다”(2:24). 이 구절은 이성애 규범성, 상보성(complementarity)을 위한 또 하나의 증거본문으로 쓰인다.<sup>45</sup> 이영미는 관찰하기를, 인간이 갖는 개별적 독자성과 하나됨이라는 안드로진적 이상은 오직 결혼이란 제도를 통해 성취된다는 암시는 이 구절 어디에도 없다고 한다.<sup>46</sup> 실상 24절은 결혼과 남녀 상보성은커녕 그 반대 해석을 보여줄 가능성을 더 많이 갖고 있다.

24절은 남성 시각에서 쓰였고, 남자는 여자에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헤르만 궁켈(Hermann Gunkel)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은 이 구절을 남자의 욕망

45 Gagnon, *The Bible and Homosexual Practice*, 56, 61-62.

46 이영미, “성서의 퀴어성과 해석의 다양성: 인간창조(창 1:27; 2:7, 24) 본문을 중심으로”, 『신학연구』 71(2017), 55.

을 설명하는 원인론(etiology)이라고 해석했다.<sup>47</sup> 또한 24절의 배경이 되는 역사 상황을 찾아 해석한 연구들도 있다. 안젤로 토사토(Angelo Tosato)는 24절이 포로기 이후의 추가 및 해설이라고 판단하고, 에스라, 느헤미야 등의 본문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임의적인 일부다처와 중혼에 반대하는 새 법에서 나왔다고 주장한다.<sup>48</sup> 메건 워너(Megan Warner)는 토사토의 포로기 이후 연대에 기초하여 24절의 저자들에게는 통혼(intermarriage)이 중요한 사회 문제였다고 본다.<sup>49</sup> 그런데 24절은 통혼에 반대하거나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사회, 종교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부적합한’ 결혼을 추구하는 남자들의 성향을 비난 없이 인정하는 것이다.

이런 해석은 아자브를 ‘떠나다’가 아니라 ‘저버리다(abanndon, forsake)’로 이해한다. 그렇다면 남자는 부모를 ‘저버리고’ 여자에게 가는데, 이는 사무엘 테리엔(Samuel Terrien)과 고든 웬햄(Gordon Wenham) 같은 학자들의 지적처럼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출 20:12; 신 5:16)과 원칙을 충격적으로 뒤엎는다.<sup>50</sup> 공켈은 이 구절을 결혼이나 일부일처제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sup>51</sup> 24절은 구약성서가 보여주는 결혼 전통에도 어긋나는데, 여자가 친정을 떠나 시가 쪽에 와서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자신의 가족을 떠나 여자에게 가는 가모장제 및 처가 거주(matrilocal)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폰라

47 Hermann Gunkel, *Genesis*, trans. M. E. Biddle (Macon: Mercer University Press, 1997), 13; Gerhard Von Rad, *Genesis: A Commentary*, The Old Testament Library, trans. John H. Marks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72), 85; Claus Westermann, *Genesis 1-11: A Commentary*, trans. John J. Scullion S.J. (Minneapolis: Augsburg, 1974), 233.

48 말 2:10-16; 레 18장과 20장; 라 9-10장; 느 10:30-31; 13:23-29. Angelo Tosato, “On Genesis 2:24”, *Catholic Biblical Quarterly* 52 (1990), 406.

49 Megan Warner, “‘Therefore a Man Leaves His Father and His Mother and Clings to His Wife’: Marriage and Intermarriage in Genesis 2:24”,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36, 2 (2017), 269-288.

50 Samuel Terrien, *Till the Heart Sings: A Biblical Theology of Manhood and Womanhood* (Philadelphia: Fortress, 1985), 14-15; 고든 웬햄/박영호 옮김, 「창세기: 1-15」, 188.

51 Gunkel, *Genesis*, 13.

트가 볼 때, 화자의 목적은 잃어버린 낙원 같은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sup>52</sup> 그렇다면 가모장제와 처가 거주는 낙원의 이상이었고, 24절이 결혼제도의 제정이라면, 우리는 모두 처가 거주제를 실천해야 한다고 일부 학자들은 꼬집는다.<sup>53</sup> 창세기 밖에서 성서는 별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고 또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가?<sup>54</sup> 최초의 두 사람은 개의치 않는다. 야웨 저자도 에덴 밖의 세계관에 개의치 않는다.

2장 7절의 흙사람이 남자가 아니고 24절이 결혼제도를 말하고 있지 않다면, 번역어도 주의해서 택해야 한다. 새번역은 하이담을 내내 ‘사람’으로 번역하다가 에제르 크넥도가 등장하는 18절과 20절에서는 ‘남자’로 번역한다. 개역개정판은 18절을 ‘사람’이라고 번역한 반면, 19절부터는 고유명사 ‘아담’으로 대체하여 부르기 시작한다. 그리고 새번역과 개역개정판 둘 다 이쉬와 이샤를 ‘남자, 여자’로 번역해야 하는데 ‘남자, 아내’로 번역한다. 결혼 맥락도 아니거니와, 결혼이라면 ‘남편, 아내’로 해야 한다. 번역자의 선이해와 이성애 중심주의가 번역에 반영된 듯하다.

우리는 2장 끝까지 여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고 생각도 알 수 없다. 어쨌든 이 남성형 에제르인 여자는 스스로를 남자에게 가서 달라붙어야 하는 존재로 생각하지 않는다. 남자를 따라가 달라붙고, 별거벗음을 부끄러워해야 할 것 같은 여자의 규범에 맞지 않는다.

창세기 2장은 흙덩이가 흙사람이 되고, 흙사람이 여자와 남자로 되고, 남자는 부모를 버리고 에제르 크넥도 여자에게 밀착하여 다시 한 ‘살’이 되는 이야기, 트랜스 이야기이다. 이는 변하고 바뀌는 이야기로서 고정된 것이나

52 Von Rad, *Genesis*, 83.

53 Tosato, “On Genesis 2:24”, 399-400; Mollenkott, *Omnigender*, 101.

54 예를 들어, 제사장들은 제물을 바칠 때 ‘별거벗음’을 드러내서는 안된다는 율법의 주장(출 20:26; 28:42-43)과 대조된다.

안정된 것이 없다.

### 3) 창세기 3장: 유토피아에서 디스토피아로의 트랜스

창세기 3장 또한 무언가 변화하는 이야기이다. 최초의 두 사람이 다정한 관계로 편하게 살다가 도전이 가득한 현실 삶으로, 즉 유토피아에서 디스토피아로 트랜스하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물론 학자들은 이 이야기를 원인론 (etiology)로 본다.<sup>55</sup> 즉 거꾸로 읽어서, 우리가 어쩌다 디스토피아 현실 속에 살게 되었는지 설명하고, 원래는 얼마나 유토피아였을 것인지 상상하는 이야기이다. 우리의 현재 삶을 디스토피아로 부르기에 ‘1984,’ ‘멋진 신세계,’ ‘사냥의 시간’ 같은 소설과 영화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25억명이 하루 2달러 이하로 살고, 해양 산성화는 자연 속도보다 100배 빠르게 진행되고, 올해 세계 5천만 명이 기근의 위협에 빠질 것이고, 무수한 ‘웰컴투 비디오’(아동 성착취물 사이트)가 성행하는 현실은 충분히 디스토피아라고 본다.<sup>56</sup> 그래서 ‘디스토피아’는 과장이면서 현실이다.

3장에는 말하는 뱀, 영생을 주는 나무, 선악의 지식의 나무, 바람결에 산책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농경문화이지만 애써 일하지 않고도 잘 사는 두 사람이 등장한다. 넷플릭스와 배달 앱 따위가 없어도 ‘풍부한’ 에덴답게 ( 채식) 뷔페가 널려 있고 (2:24의 ‘한 몸’에서 실현된 성관계를 보는 고대 랍비들과 이성에 중심주의자들에 따르면) 피임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삶, 어른들의 유토피아 내러티브이다.<sup>57</sup> 이 유토피아는 얼마나 지속되었을까? 뱀이 찾아올 때 ‘여자가

---

55 Von Rad, *Genesis*, 87; 데이빗 카터는 야웨 저자가 세상의 수수께끼 같은 현실을 설명하려고 시도한다고 본다. David W. Cotter, *Genesis*, Berit Olam (Collegeville, MN: Liturgical Press), 35; Ziony Zevit, *What Really Happened in the Garden of Eden?*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13), 263.

56 기후변화와 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안 앵거스/ 김현우 외 옮김, 「기후정의」(이매진, 2012) 참조.

57 제빗은 에덴의 뜻을 ‘풍부함(abundance)’으로 제시한다. Zevit, *What Really Happened in the Garden of Eden?*, 86-87.

방금 창조되어 아직 배고픔을 모르는' 상태였다는 에프렘의 말을 따르면 유포피아는 너무도 짧았다.<sup>58</sup>

동시에 이 트랜스 이야기에는 현실을 관조하여 받아들이는 모습, 곧 웃음과 유머도 깃들여 있다. 첫째, 여자와 남자의 역할이 2장과 달리 유머스레 트랜스한다. 2장에서 수동적이었던 여자는 이제 팔을 걷어부치고 인류를 위한 지혜를 추구한다. 사실 야웨 저자는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도 인간이, 적어도 여자가 충분히 지혜로웠음을 보여준다. 여자는 “하나님이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여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3:3)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성찰하는 최초의 ‘신학자, 윤리학자, 해석자, 랍비’가 아닌가(3:6).<sup>59</sup> 거기에 이제는 뱀의 말대로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고 싶어서(3:5) 열매를 먹고 옆에 있던 남자에게도 준다. 그런데 남자는 2장과 달리 수동적이고 여자나 하나님이 주도할 때만 말과 행동을 한다. 뱀과 여자의 대화 장면에서 가만히 열매를 받아먹는다. 게다가 하나님이 열매를 먹은 것에 대해 물으실 때 하나님 탓, 여자 탓을 하는 듯하다(3:12).

둘째 유머는 여자가 추구하던 지혜의 실체와 연관이 있다. 두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서 처음 깨달은 것이 겨우 별거벗은 것을 알게 된 것이나 아룸(영리한)과 에루뮴(그들의 별거벗음)의 어희도 유머스럽다. 웬함은 이 장면을 ‘주제의 심각성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웃음을 자아낼 정도로 희극적’이라고 관찰한다.<sup>60</sup>

셋째 유머는 여자에 대한 하나님의 지엄한 선고(3:16)에 들어있다. “너는 수고도 많이 하고 임신도 많이 할 것이다. 너는 진통하며 아이를 낳을 것이

58 Mathews and Amar, *Saint Ephrem the Syrian*, 110.

59 트리블/유연희, 「하나님과 성의 수사학」, 178.

60 웬함, 「창세기: 1-15」, 195.

다. 네 욕망이 네 남자를 향해 있다. 그가 너를 지배할 것이다.”<sup>61</sup> 여자가 남자를 욕망하는 것이 어떻게 징벌인지, 출산의 고통을 감수할 만큼 어떻게 더 큰 욕망인지, 지배받고 싶지 않은 욕망보다 어떻게 더 큰 욕망인지 모두 유머스럽다. 제롬 젤만(Jerome Gellman)은 여자가 남자에게 충분히 순종적으로 되도록 수정하기 위해 하나님이 욕망을 추가하셨다고 해석한다.<sup>62</sup> 여자의 잘못된 열매를 먹어서가 아니라 순종적이지 않아서 ‘그녀의 남자’에게 열매를 주고 먹게 만든 것이다. 여자가 남자를 향한 강한 성적인 욕망을 가지면 자신의 이기적인 이유로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이는 물론 남성 저자와 청중의 환상과 바람을 반영하는 유머라고 볼 수 있다. 3장이 2장을 정정한다면, 2장에서는 남자만 여자에게 ‘달라붙는’ 적극성을 보였는데, 3장은 여성에게도 능동적으로 욕망하는 모습을 부여한 것이다.

앞에서 소개한 스톤의 퀴어 해석을 되짚자면, 여자가 남자에게 이성애적 욕망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벌의 부자연스런 결과이다.<sup>63</sup> 그래서 결국 창세기 3장은 이성애로의 ‘타락’인 것이다. 3장은 2장이 인간 섹슈얼리티를 축하하는 것에 대한 패러디,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 출산하고 고되게 일하고 살아야 하는 인간 삶에 대한 관조와 해학이라고도 볼 수 있다.

3장에 크로스 드레싱의 순간도 있다. 남자와 여자는 벌거벗은 것을 알고서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모종의 가리개(하고로트(הגנת))를 해입는다(창 3:7). 이 단어는 다른 데서 ‘허리띠(belt)’를 가리키므로(삼상 18:4; 왕상 2:5 사 3:24 등), 사실 부실한 의상인데, 성서 번역자들은 ‘치마’나 ‘가리개’(coverings)로 번역하

61 3장 16절의 대명사 후(היא)가 남성 대명사이지만 선행하는 여성 명사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의 명사, ‘욕망(테슈카)’를 가리키고, 대구법을 이어간다는 해석에 대해서는 유연희, “창세기 3:16의 새로운 해석을 찾아서,” 『성경원문연구』 34(2014년 4월), 1-16를 보라.

62 Gellman, “Gender and Sexuality in the Garden of Eden”, 327-28.

63 Stone, “The Garden of Eden and the Heterosexual Contract”, 63-64.

여 많이 가려준다.<sup>64</sup> 이들은 같은 재료로 같은 디자인의 옷을 만들어 입기 때문에 사실 유니섹스, 크로스 드레싱(이성 복장 착용)이다. 하나님의 의상 제작도 그러하다. 하나님은 두 사람에게 선고를 내리신 후 가죽으로 긴 겹옷(카트 노트/twntk)을 만들어 입혀주신다.<sup>65</sup> 재료도 디자인도 유니섹스, 크로스 드레싱이다. 신명기는 크로스 드레싱을 금지하므로(22:5) 야웨 저자는 다시 에덴 밖의 규범과 어긋난다.

창세기 2-3장을 지혜 이야기로 읽는 것이 그럴 듯하다. 제밧에 의하면, 에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원인론적 특징은 인간이 어떻게 더 또는 덜 선호하는 것 사이를 구별하고 선택하는 지식을 얻었는지를 설명한 것이다. 그래서 에덴 이야기는 추락이 아니라 상승하는 따뜻한 이야기라고 한다.<sup>66</sup> 그리고 보면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난 덕(?)에 에덴 밖 어디든 가고, 생로병사의 모든 스펙트럼을 다채롭게 겪으며 대대손손 살게 되었다. 그러나 창세기 2-3장을 마냥 따뜻하게만 볼 수 없는 것은, 수많은 문자주의자들이 창세기가 주로 특권적 남성과 가부장주의(patriarchism)의 관점에서 기술되었음을 간과하고, 이성애주의와 가부장제의 이름으로 세상을 디스토피아로 만들어 왔기 때문이다. 인간이 다시 에덴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해도 세상을 최대한 에덴과 가깝게 만들 것인지 아닌지, 계속 폭력과 혐오를 실천하고 자연과 약자를 억압할 것인지 아닌지, 최초의 두 사람처럼 우리는 선택 앞에서 있다.

---

64 새번역과 개역개정에는 '치마'로, NRSV는 loincloths(허리두르개)로, NKJV는 coverings(가리개)로 번역한다.

65 가죽 공동체(leather community, 가죽 의류를 입거나 사용하고 남성성 및 성적 힘을 나타내는 하위문화)는 성서에서 유래를 찾아 반가워할 듯하다. 참조, [https://en.wikipedia.org/wiki/Leather\\_subculture](https://en.wikipedia.org/wiki/Leather_subculture).

66 Zevit, *What Really Happened in the Garden of Eden?*, 263.

## 5. 결론

우리는 앞에서 먼저 창세기 1-3장에 대한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고대 랍비들, 초기 교부들, 이 최초로 창조된 인간들을 몸과 영의 안드로진, 식탐과 순결과 같은 여러 관심사를 가지고 해석한 것을 살펴보았다. 2000년 이래 시도된 퀴어 시각의 몇 가지 본문 해석도 살펴보았다.

그런 후 우리는 창세기 1-3장에서 그간의 페미니스트 및 퀴어 해석과도 대화하며 새로운 퀴어 해석도 시도하였다. 우리는 창세기 1-3장이 에텐으로 대표되는 이상적인 인간 세계에서 현실 세계로 트랜스하는 이야기로서 그 안에 모호하고 퀴어한 요소가 많다는 것을 관찰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의 인간이 하나이고 둘(두 번의 인간창조), 하나가 둘(안드로진), 둘이 모두(메리즘으로서의 '여자와 남자')인지 새로운 눈으로 보았다. 그리고 창세기 2장을 흠이 흠사람으로, 흠사람이 여자와 남자로, 둘이 다시 하나가 되는 트랜스 이야기로 읽었다. 창세기 3장은 유토피아에서 디스토피아로의 트랜스를 보여주는 이야기로 읽으며 현실 삶을 관조하는 유머도 보았다. 우리는 또한 창세기 1-3장의 저자들의 입장이 종종 창세기 밖 성서 본문 및 문화와 대조되는 모습도 관찰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모호함, 불일치, 부조화를 품은 성서 본문이 섹슈얼리티, 결혼, 출산, 관계 등에 대해 전통적인 이성애 중심주의 해석처럼 그렇게 단순하거나 자명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젠더에 대해 안정되거나 고정된 하나의 관점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관찰했다. 오히려 창세기의 퀴어 해석은 복잡하고 다채로운 창조 현상을 확인한다.

## 6. 참고문헌

- 배정훈, “구약성서에서 바라본 동성애”, 기윤실부설 기독교윤리연구소 편,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적 답변: 동성애를 긍정하진 않지만, 동성애자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교회」(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1), 75-91.
- 유연희, “창세기 3:16의 새로운 해석을 찾아서”, 「성경원문연구」 34 (2014년 4월), 1-16.
- 이승구, “동성애에 대해서 성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동성애를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 「기독교사상」(2016년 8월), 11-19.
- 이영미, “성서의 퀴어성과 해석의 다양성: 인간창조(창 1:27; 2:7, 24) 본문을 중심으로”, 「신학연구」 71(2017), 35-61.
- 버틀러, 주디스/조현준 옮김, 「젠더 트러블」(문학동네, 2008). 원제는 Judith Butler, *Gender Trouble: Feminism and the Subversion of Identity* (New York: Routledge, 1990).
- 앵거스, 이안/ 김현우 외 옮김, 「기후정의」(이매진, 2012).
- 웬햄, 고든/박영호 옮김, 「창세기: 1-15」, Vol. 1 (서울: 솔로몬, 2001). 원제는 Gordon Wenham, *Genesis 1-15, Word Biblical Commentary, Vol. 1* (Word Books, 1987).
- 트리블, 필리스/ 유연희 옮김, 「하나님과 성의 수사학」(태초, 1996). 원제는 Phyllis Trible, *God and the Rhetoric of Sexuality* (Fortress Press, 1978).
- Brown, Francis, Samuel R. Driver, and Charles A. Briggs, *A Hebrew and English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Clarendon Press: Oxford, 1953).
- Bal, Mieke, *Lethal Love: Feminist Literary Readings of Biblical Love Storie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7).
- Bird, Phyllis, *Missing Persons and Mistaken Identities: Women and Gender in Ancient Israel*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7).
- Boyarin, Daniel, *Carnal Israel: Reading Sex in Talmudic Cultur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3).

- Carden, Michael, "Genesis/Bereshit", Deryn Guest, Robert Goss, and Mona West (eds.), *The Queer Bible Commentary* (SCM Press, 2015), 21–60.
- Carden, Michael, "The Book of the Twelve Minor Prophets", Deryn Guest, Robert Goss, and Mona West(eds.), *The Queer Bible Commentary* (SCM Press, 2015), 432–484.
- Carr, David, *The Erotic Word: Sexuality, Spirituality, and the Bible* (Oxford Press, 2003).
- Coogan, Michael D., *God and Sex: What the Bible Really Says* (Hachette Book Group, 2010).
- Cotter, W. David, *Genesis, Berit Olam* (Collegeville, MN: Liturgical Press, 2003).
- Eichrodt, Walter,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Philadelphia: Westminster, 1961).
- Gagnon, Robert A. J., *The Bible and Homosexual Practice: Texts and Hermeneutics*. Nashville (TN: Abingdon Press, 2001).
- Gellman, Jerome, "Gender and Sexuality in the Garden of Eden", *Theology & Sexuality* 12(3), 319–336.
- Gossai, Hemchand, "Divine Evaluation and the Quest for a Suitable Companionship", *Crosscurrents* (Winter 2003), 543–52.
- Guest, Deryn, "Troubling the Waters: Tehom, Transgender, and Reading Genesis Backwards", Teresa J. Hornsby and Deryn Guest (eds.), *Transgender, Intersex, and Biblical Interpretation*, *Semeia Studies* 83 (Atlanta: SBS Press, 2016), 21–44.
- Gunkel, Hermann, *Genesis*, (Macon: Mercer University Press, 1997). Translated by M. E. Biddle, *Genesis*, 3rd Ed (Göttingen: Vandernhoeck und Ruprecht, 1977).
- Jobling, David, *The Sense of Biblical Narrative: Structural Analyses in the Hebrew Bible*, II. *JSOTS* 39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86).
- Kautzsch, E. ed., *Gesenius' Hebrew Grammar*, Trans. A. E. Cowley, 2nd ed. (Oxford: Clarendon Press, 1980).
- Lanser, Susan, "(Feminist) Criticism in the Garden: Inferring Genesis 2–3", *Semeia* 41 (1988), 67–84.

- McGuckin, John Anthony, ed., *The Westminster Handbook to Origen*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4).
- Matt, Daniel C., *The Zohar, Pritzker Edition, Vol. 1*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4).
- Mathews, Edward G., Jr. and Joseph P. Amar, ed., *Saint Ephrem the Syrian: Commentary on Genesis, Commentary on Exodus, Homily on Our Lord, and Letter to Publius* (Washington, D.C.: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2004).
- Mollenkott, Virginia Ramey, *Omnigender: A Trans-religious Approach* (Pilgrim Press, 2007).
- Schüßingel-Straumann, Helen, “Genesis 1–11: The Primordial History”, Luise Schottruff and Marie-Theres Wacker (eds.), *Feminist Biblical Interpretation: A Compendium of Critical Commentary on the Books of the Bible and Related Literature* (Eerdmans, 2012), 1–14.
- Sedgwick, Eve Kosofsky, *Tendencies* (Duke University Press, 1993).
- Seitz, Christopher, *Word Without End: The Old Testament as Abiding Witness* (Grand Rapids: Eerdmans, 1998).
- Stone, Ken, “The Garden of Eden and the Heterosexual Contract”, Robert Goss and Mona West (eds.), *Take Back the Word: A Queer Reading of the Bible* (Cleveland, OH: Pilgrim Press, 2000), 57–70.
- Stone, Ken, *Practicing Safer Texts: Food, Sex and Bible in Queer Perspective* (T & T Clark International, 2005).
- Stone, Ken, “Queer Criticism”, Ed. Steven McKenzie and John Kaitner (eds.), *New Meanings for Ancient Texts*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3).
- Terrien, Samuel, *Till the Heart Sings: A Biblical Theology of Manhood and Womanhood* (Philadelphia: Fortress, 1985).
- Tosato, Angelo, “On Genesis 2:24”, *Catholic Biblical Quarterly* 52 (1990), 389–409.
- Von Rad, Gerhard, *Genesis: A Commentary, The Old Testament Library*, Trans. John H. Marks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72).
- Warner, Megan, “Therefore a Man Leaves His Father and His Mother and Clings to

His Wife' : Marriage and Inter-marriage in Genesis 2:24",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36, 2 (2017), 269-288.

Wenig, Margaret Moers, "One Male and Female God Created Them", Gregg Drinkwater, Joshua Lesser, and David Shneer (eds.), *Torah Queeries: Weekly Commentaries on the Hebrew Bible* (New York Univ. Press, 2009), 111-116.

Westermann, Claus, *Genesis 1-11: A Commentary*, trans. John J. Scullion S.J. (Minneapolis: Augsburg, 1974).

Zevit, Ziony, *What Really Happened in the Garden of Eden?*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13).

검색어

창세기 1-3장

퀴어링

트랜스

젠더

불안정성

규범 해체

## Queering Genesis 1-3

Yani Yoo

Lecturer at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Union Theological University Ph.D.

This essay reads Genesis 1-3 with a symbolic word, ‘trans’ and queer criticism. The goal is to demonstrate that since the texts contain ambiguity, inconsistency, disharmony, they do not have a stable, fixed view about sexuality, marriage, reproduction, and relationship unlike traditional heterosexual interpretations. The author of the essay sees two creations of humans in Genesis 1:27bc, “In the image of God he created him male and female he created them.” It can be said that one human being is first made because the last word, ‘him(אָדָם)’ in “He-created him” has *atnah*, a disjunctive accent separating the logic. Then, male and female are created. Although this interpretation might sound strange, the ambiguous text does not exclude the

www.kci.go.kr

possibility. The Bible is open to many interpretations because of its inherent ambiguity, resilience, polyphony, and opacity.

There are many transformations in Genesis 2. The dust is transformed to earth creature(adam), the first human being sexually undifferentiated. Then the 'side' of adam is transformed to woman and the earth creature is transformed to man. Now the two become one (2:24). God desires to find ezer knegdo, a saving partner for the earth creature. Ezer is masculine in grammar and so the reader imagines a male partner. But it turns out to be a woman, offering a transgender case in the reader's mind.

Genesis 3 is also a story of transformation: From the 'abundant' Eden to the real life full of challenges, from utopia to dystopia. In Genesis 3 the celebration of sexuality and companionship of Genesis 2 are parodied and the roles of the woman and the man are reversed in contemplation and humor. Genesis 3:16 can be most hilarious because the woman's punishment is to desire the man sexually as to she is willing to endure the pain of pregnancy and childbirth. And the desire is greater than the desire not to be ruled by the man! The reader notices a moment of cross dressing in the text. When both the two people and God make clothes they use the same material and design for both the woman and the man. Our reading of Genesis 1-3 from 'trans' and queer perspectives affirms complicate and variegated creation phenomena, challenges the reader's fixed idea, and offers the reader broad viewpoints.

## Keywords

Genesis 1-3

Queering

Trans

Gender

- 투고일: 2020년 10월 13일
- 심사일: 2020년 10월 29일
- 게재 확정일: 2020년 10월 30일

[www.kci.go.kr](http://www.kci.go.kr)